

2021 새해 새 설계

최형식 담양군수

“주민 실질소득 늘려 ‘행복도시 담양’ 기반 닦겠다”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과 실용성을 갖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신년사에서 “민선 7기 군정 성과가 군민들 피부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먼저 ‘관심과 배려의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를 겪으며 재정의 한계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교훈 삼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업에 대한 목표를 ‘작지만 강한 농정 실현’에 두고 농민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는 ‘담양군 농업회의소’ 운영과 ‘담양농업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 집중

농민이 주도하는 자치 농정 구현
추월산 케이블카 사업 본격화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한 소통창구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군수는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와 ‘LH 행복주택’을 유치해 경쟁력 있는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과 대나무 공예품 생산마을 운영 등 행정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은 기존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2021년 주요 사업

- ▲보편적 복지 강화
- ▲‘작지만 강한 농정’ 실현
- ▲지역 자원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력
-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 ▲사람중심의 생태정원도시 기반 강화
-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선순환을 가져오고 해동문화예술촌, 담빛예술창고 2관 등 문화예술공간의 전시공연 예약제 운영을 통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구축한다.

이에 더해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원정책을 펼치고, 생태정원도시에 맞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악취·소음·먼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축사육 총량제

도입을 통한 정결위생 축산을 실천한다.

또 ‘담빛문화지구’에 대한 마무리 정비 사업과 더불어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송강리 버파크 건설사업’ 등 광주와 인접한 고서를 중심으로 남부권의 새로운 거점을 육성하는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은퇴자 유치를 위한 대덕 새꿈도시 조성사업 및 유포리아 빌리지 조성사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인허가 사업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추진상황에 맞춰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빠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추월산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도 본격화한다.

최 군수는 “올해 목표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의 강화에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함평군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 종축개량·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023년까지 3년간 12억원 투입

함평군은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함평전지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우 개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남도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일반 한우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친자확인 및 선발기준 등을 심사하고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으뜸한우’ 브랜드 명칭을 부여한 뒤 집중 육성·관리한다.

함평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 간 매년 4억원씩 총 12억원을 투입한다.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하는 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함평가축시장 내 전자장매 시스템을 활용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사업시행기관인 함평축협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전담인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종축개량,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 검사, 정액공급, 초음파진단기 확보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 참여 농가에는 귀표부착, 백신공급, 개체관리 현황판 보급 등을 지원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일반 송아지보다 수 십만원 높게 낙찰될 정도로 브랜드 송아지의 우수한 품질과 시장 수요는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시가 수목이식비를 보상해준 뒤 은행나무를 무료로 옮겨심어주는 등 예산을 중복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가 개인 정원에 무료로 이식한 은행나무들.



나주시는 교량 길이 5m의 포림천교를 20m로 늘려 특수공법을 이용해 포림천교를 재가설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수목이식비 중복 책정·교량 길이 부풀리기...나주시 예산낭비 ‘빈축’

은행나무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
5m 소하천 20m 교량...사업비 2배

나주시의 행정 미숙에 따라 ‘남평 은행나무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광주일보 1월5일자 12면)된 데다 사업비마저 중복 책정·지출하는 등 예산 집행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수목 이식비를 보상해준 뒤 무료로 나무를 이식해주는가 하면, 5m 소하천의 교량을 20m로 늘리고 특수공법을 채택해 예산 낭비를 불렀다는 의혹이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남평읍 광촌리 입구에서부터 은행나무수목원까지 길

이 403m, 폭 8m, 소교량 2개소 건설 등 ‘남평 은행나무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3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90%, 시비가 10% 투입된다.

그러나 나주시는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신 모씨의 은행나무 45그루 등 85그루에 대한 수목이식 보상금을 신 씨와 시공사에게 중복 책정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가 시공사의 장비를 이용해 신 씨 정원의 은행나무 수십그루를 무료로 옮겨심어준 뒤, 신 씨에게 이식보상금으로 1300여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취재하자 나주시

는 뒤늦게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가운데 수목이식비용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공사는 즉각 반발했다. 시공사 측은 “나주시가 요청한 수목을 이식했다. 이식비용을 받는 것이 정당한데”며 “무료로 이식했으니 신 씨에게 이식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총 사업비 중 38.5%가 소요되는 소교량 2개소 건설과 관련한 의혹도 불거졌다.

나주시는 총 사업비 23억4000만원 가운데 9억원을 들여 ‘광촌 지방하천’ 6m 교량을 21m로, ‘포림 소하천’ 5m 교량을 20m로 늘려 특수공법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

천 폭이 5-6m인데 교량 길이를 과하게 늘리면 하천 폭은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다”며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건설비가 2배 이상 늘어나는데 특수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길이를 늘린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91년 전남도가 시행한 광촌리 남평분교 폐교 앞 광촌교의 경우 하천 폭이 약 10m인데 교량 길이는 12m로 건설됐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수목 보상비가 중복으로 책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공사에 반영된 공사비 삭감을 검토 중”이라며 “교량은 50년 빈도로 설계하면 길이가 20m와 21m가 나온다”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